# 옥살이 신체·정신적 배상 사실상 '패소'

## 7일 제주지법 4·3 수형인 등 39명 손배청구 선고공판
## 손해 대부분 불인정… 청구인들 "재판 하나마나" 분통

제주4·3 당시 불법 체포와 구금으로 10개월 된 아들이 굶어 죽어도, 고문을 당해 장애가 생겨도, 집이 불태워져도 그 책임을 국가에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류호중 부장판사)는 7일 양근방(89) 할아버지를 비롯한 4·3수형인 18명(생존 12명·사망 6명)과 수형인 유족 등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수형인들이 승소한 53억원대 '형사보상 청구 소송'이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라면, 이번 소송은 억울한 옥살이 이후 겪은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사실상 패소였다. 재판부는 국가가 수형인에게 1억원, 배우자에게 5000만원, 자녀에게 10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밝히면서도, 배상금에서 앞서 지급된 형사보상금을 빼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형인 18명 가운데 '배상금'을 받는 경우는 단 1명(2800여만원) 뿐이다.

이러한 판결이 나온 이유는 수형인들이 억울한 옥살이 이후 겪은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먼저 1948년 12월 26일 불법 체포와 재판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육지 형무소로 이송되다 10개월 된 아들을 잃은 오계춘(99) 할머니의 경우는 "법원에 제출한 증거 만으로 가족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사망한 사실을 인정 하더라도 국가의 불법행위 때문에 사망했다고 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 고문으로 인한 후유장애를 입었다는 수형인에 대해서도 "후유장애가 불법행위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으며, 출소 이후 경찰의 불법 사찰을 겪은 것에 대해서도 "제출한 증거 만으로 경찰이 불법사찰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재판부는 수형인들이 출소 이후 겪은 피해를 단순히 '파생된 결과'라고만 판단했다"며 "또 배상 범위를 일률적으로 책정했는데, 억울한 옥살이를 1년 한 사람과 10년 이상 한 사람이 같을 수 있나"고 토로했다.

이날 재판을 들은 수형인 양일화(92) 할아버지도 "형무소 출소 직후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2년 동안 산으로 바다로 고된 방랑생활을 했다. 형무소 수감 때보다 힘든 시간이었다"며 "(이러한 고통을 인정하지 않은) 오늘 재판은 하나마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소송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3억원으로, 1인당 적게는 3억원에서 많게는 15억원에 이른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7일 제주지법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을 청구했던 수형인 등이 반발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테트라포드 위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는 낚시꾼들. 강민성기자

# 월척 노리는 당신, 안전은…

## 안전장비 착용없이 갯바위·테트라포드 '북적'

제주지역에서 해마다 낚시객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월척을 위해 갯바위나 테트라포드 등 위험한 곳에 낚시객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제주시 도두동, 이호동, 용담포구 등 해안가에는 낚시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각종 낚시용품을 들고 갯바위나 테트라포드에 자리를 잡고 낚시를 즐기고 있었다.

낚시객들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미끄러운 갯바위 사이를 거침없이 이동하는가 하면 위험에 아랑곳 않고 갯바위 깊숙이 들어가거나, 테트라포드를 오가는 모습이 목격됐다. 특히 야간엔 시야가 보이지 않아 발을 헛디뎌 크게 다치거나 실족할 위험성도 도사리고 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물때와 기상상황을 사전에 파악해야 하지만 적지않은 낚시객들이 이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불감증은 사고 발생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낚시객 연안사고는 ▷2018년 32건 ▷2019년 27건 ▷지난해 21건 ▷올해 8월까지 9건 등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인명피해는 ▷2018년 사망 1명 ▷2019년 사망 7명·실종 1명 ▷지난해 사망 2명·실종 1명 ▷올해 8월까지 사망 2명 등으로 집계됐다.

실제 지난 6일 서귀포시 외돌개 앞바다에서 새벽 낚시를 즐기던 60대 남성이 물에 빠져 해경이 구조에 나섰지만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 8월 29일에는 제주시 도두항 방파제에서 70대 낚시객이 테트라포드 사이로 추락해 숨지기도 했다.

해경 관계자는 "낚시 전 기상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장비도 착용해야 한다"며 "제주 바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초보낚시객이나 관광객들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만큼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민성기자

## 575돌 한글날 경축식 취소
## 도 "코로나 확산 방지 위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9일 열릴 예정이던 제575돌 한글날 경축식이 취소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9일 오전 10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575돌 한글날 경축식을 취소한다고 7일 밝혔다.

당초 제주도는 한글 관련 기관 단체, 회원 등 50명 미만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로 경축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추석 이후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대체 휴일에 따른 이동량 급증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또 사우나發 집단감염 발생

## 삼도사우나 직원 동선 공개… 현재 5명 코로나 확진
## 7일 오후 5시 기준 9명 확진 속 이달 들어서는 48명

제주에서 사우나를 매개로 한 새로운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하루새 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발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오후 5시까지 9명(2924~2932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2932명으로 집계됐다. 이달 들어선 48명이 감염됐으며 주 평균 1일 확진자 수는 6.86명을 나타내고 있다.

신규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5명, 타지역 입도객 2명, 코로나19 유증상자 등이다.

특히 지난 '제주시 사우나3' 신규 집단감염 사례가 나타났다.

도방역당국은 지난 6일 제주시 삼도1동 소재 '삼도사우나'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돼 7일 동선을 공개했다. 방역당국은 안심코드와 수기명부에 기록된 출입기록을 통해 방문자를 대상으로 검사 안내를 하고 있지만, 관련 접촉자가 모두 파악되지 않아 동선을 공개했다.

동선 공개에 따라 삼도사우나 관련 방문 이력으로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총 5명이 확진되면서 집단감염으로 분류됐다.

목욕장업은 업종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자연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환경에서 오랜 시간 체류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위험도가 높아 고위험시설로 관리되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6일까지 '삼도사우나 여탕'을 이용했던 사람은 코로나19 증상이 없어도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상담 후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방역당국은 여탕에서 세신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검사 시 세신 여부의 정보를 공유할 것도 당부했다.

강다혜기자

## "오등봉 민간특례 분양가 제주시 입장은 무엇인가"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사업자 측이 아파트 분양가 인상 발언을 하며 논란이 일자 시민단체가 제주시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제주시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자 아파트 분양가 인상 발언에 대해 제주시장이 입장을 즉시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한 언론보도에서 제주시와 공동으로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민간 사업자가 "토지 감정과 수용 절차를 거치면 사업계획을 낼 때보다 보상가가 오를 수밖에 없어 아파트 분양가를 올려 약속된 수익을 올리려 한다"며 "8.9% 수익률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 발주청인 제주시와 약속했고, 약속된 수익률을 보장받기 위해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강민성기자


진정한 제주흙의 보약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마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페르카 효과
연작장해 토양 소독 살균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뿌리혹병의 경감
YouTube 석회질소 검색
핵심 물질
달팽이추출물: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주며, 양분의 저장고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Cocoly
Powerful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흡수율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PGA: 얇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키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용량 : 20kg
NAVER 코코리 검색
농가작업인부 지원(과수원 밭작업)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제)州(주) 리모델링
辛(신)一(일)祚(조)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017 포크레인 임대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화장실 리모델링 / 아파트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붙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누수탐지 :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는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 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제주은행 하나약국 한국병원 시외버스터미널 오라파출소 국제보청기 (국제기계2층) 한라체육관 실내수영장
대표 임장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